

몽골 농업선교이야기

이혜식(몽골 선교사)

몽골은 약 3,300만두에 달하는 가축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식생활로 정착을 하였고, 또한 방만한 방목은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몽골일부지역의 사막화를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육식을 하는 전통적인 몽골인의 식생활은 녹색식물 섭취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부족으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었듯이 이 곳 몽골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유목민인 몽골인들에게 경작 가능성을 보여주고, 식생활을 위한 채소 지역적응 시험 재배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몽골에서 최초로 헤브론산다스 채소 농장을 시작으로 하여 몽골국립식물연구소, 한국채소약용식물포장, 몽골국립농대 한국원예시험장 등에서 공동사업을 끝마치고 이제는 몽골정부의 인정을 받고 몽골의 녹색혁명 국책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현재는 몽골정부의 후원으로 수도 울란바타르시 근교의 녹색

농업기술센터(단독학교법인 약 27만평)를 설립하여 장래 몽골의 농업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교육하며 근교의 주민 200여명을 교육하고 울란바타르 내에 있는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종 몽골인, 몽골

몽골은 우리에게 그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은 나라였지만 최근 몽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몽골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몽골인들은 한국인을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 색동저고리의 나라)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생각한다. 최근 몽골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종 중 몽골인과 가장 가까운 인종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미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였을 때 몽골과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로 거의 교류가 단절되었다가 이제 다시 한국이 몽골에 우호적인 원조를 함으로써 긴밀한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몽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몽고라는 명칭은 중화 사상을 지닌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을 몽매한 야만인으로 경멸하였기 때문에 청대 이후에 蒙古(우매할 몽, 옛 고)라고 부른데서 유래한다. 몽골이 정확한 명칭이다.

몽골은 1921년 인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목을 중심으로 한 봉건주의 사회체제의 국가였다. 아시아 대륙의 중부지역에 위치한 몽골은 역사적으로 이미 8세기 무렵 흑룡강 상류인 에르군네(Ergune)하 유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3세기에 들어 징기스칸에 의해 거대한 정복 국가로서 위상을 떨쳤다. 그 전성기인 원나라 시대 고려를 침략하여 우리 문화에 몽골 문화의 영향을 크게 끼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고려 여인들을 볼모로 잡아가 고려인의 혈통을 이어 받으면서 혈통적, 문화적으로 우리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 원나라를 통치하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명조에 의해 패망하고 난 후 몽골은 러시아와 청조에 합병되어 독립민족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

고 지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되자 동년 12월 21일 몽골은 라마교 지도자들에 의해 독립을 선언한 뒤 1921년 11월 러시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몽골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후 내몽골은 1947년 5월 1일자로 중국의 자치구로 지정되었고 외몽골은 수흐바타르가 레닌의 지원을 받아 1921년 독립을 선포한 뒤 1924년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으로 독립국가를 성립시켰으며 1992년 1월 몽골국으로 이름을 개칭하였다.

몽골지역과 기후

몽골은 2000년 통계로 인구가 약 240만 명이고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 고도에 위치해 있는 국가다. 몽골의 지형은 평균고도가 1,580m의 고원지대이며 위치로는 만주와 위도가 비슷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은 156,7만 km² 로서 남한의 16배 이상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몽골은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내륙국가이며 높은 산들과 약 25만km(남한 정도 되는)가 되는 도르놋드평원 등을 비롯하여 넓은 고산평야와 호수 및 사막 등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기후는 겨울철이 아주 길고 춥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 날씨가 계속되며 올해는 5월에도 함박눈이 오고 눈발이 날리곤 하였다. 1월 평균기온은 영하 25도 정도이며 가장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 겨울철의 날씨는 맑고 일조량이 많으며 대체로 연중 대기가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은 편이다. 연간 강우량은 200-220mm이나 알타이 산맥, 헨티산맥, 험스갈 산맥과 일부 향가이 산맥에 있는 산지와 곡지의 연간 강우량은 400-500mm에 달하고 있다.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심한 나라이며 계절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의 심화로 재배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강우량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몽골은

현재 몽골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오랫동안 소련의 원조를 받았으나 소련이 철수한 후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중국의 값싼 물자들이 들어와서 소비재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나 아직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타르이며 인구는 80만으로 전체인구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인구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공용언어는 할하몽골어이며 종교는 명목상 라마교인과 토속신앙 그리고 소수의 이슬람교인 그리고 기독교는 지난 10년 동안 몽골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몽골의 선교 상황

현재 몽골은 선교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7세기 경에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2세기 경 고비사막 북쪽의 케라이트 부족에 대한 선교가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 선교는 1817년 스웨덴 선교사 코르넬리우스 랍과 영국 선교사 부부 스타리브라스가 효시를 이루었다. 1989년까지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1990년에 신약성경이 서양 선교사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2000년에 신구약 성경이 20,000권이 출판되었으나 현재 부족하여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찬송가도 2000년에 발간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수도 울란바타르에 공인된 교회도 수십 곳이 있으며 지방에도 거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몽골 농업 사역의 시작

90년 초반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방화와 더불어 시장경제체

제로 전환하는 침울한 시기에 몽골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가난과 인간의 기본수요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써 몽골의 농업과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몽골 복음화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대학에서의 제자양육, 장기적으로 유목민 정착사업을 통한 교회개척, 교회 중심의 농촌과 근교농장, 농촌지역 개발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여 왔다.

사역의 목표는 첫째로 농업사역을 통한 전문인 제자양육 및 선교의 공생적(영적, 구제 및 지역사회개발의 균형)모델 제시 둘째로는 지역사회개발(농업, 식품영양, 주거개선(건축), 교육, 생태관광) 세 번째로는 기독교 협동농장 및 친환경 유목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 개척이다.

이러한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사역을 한 결과 이제는 몽골사회에서도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가져 왔고 채소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채소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채소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소규모 비닐하우스 채소 농장들이 울란바타르시 근교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새 정부로부터 친환경 유목 정착을 위한 모델 제시를 제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몽골 식량농업부, 국립 농대, 몽골·한국 친선개발협회 그리고 한국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며 준비하고 있다.

몽골 농업 선교프로젝트

몽골 농업선교프로젝트를 3단계로 하여 농업개발과 복음 전파를 목표로 사역들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육식 중심의 식생활로 발생하는 각종 고질적인 질병과 수명 단축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며 몽골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필요한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을 정착케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농업 및 지역사회개발 계획은 이들의 식생활 및 기본적

인 삶과 관계되는 농업을 개발함으로써 물질적, 현실적, 영적인 분야 등 사회 각 영역에 도움을 주는 사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얻는 현지인과의 관계 발전이 교회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연중 비교적 긴 겨울동안(약 8개월) 이곳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연 자원을 연구·개발하여 재배할 수 있다는 비전을 현지인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몽골인들이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지역사회개발을 수행하여 교회개척에 연결하고 있다.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농업 전문인 제자양성과 아울러 현재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되는 교회개척이 21개 아이막(도), 330개 솜(군), 아그로 파르크(정부 시범 농장)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몽골 농업 선교프로젝트 제1기

1993년부터 1996년은 몽골 농업 선교 10개년 프로젝트의 제 1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93년 5월부터 8월까지 채소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하였다. 93년 9월부터 95년 9월까지 헤브론 산다스-한·몽 합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몽골인들에게 간단한 비닐 하우스를 통해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때 몽골 국영 TV 방송사, 한국 대사관, 몽골 식량농업부 후원으로 농산물 전시 및 요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몽골에서의 채소재배에 대해 계속 연구하는 중 95년 8월에는 아시안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한국 채소류 몽골지역 적응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몽골인들에게 한국 채소재배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95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울란바타르 근교 가정에 비닐 하우스시설을 하여 채소 재배기술을 가르쳤다. 몽골에 효과적인 농업기술의 보급과 연구를 위하여 계속 공부하던 중 96년 1월에는 몽골 국립농대 원예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부분 몽골인들은 채소를 소나 양들이 먹는 풀처럼 생각하였으며 동물들이 다양한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채소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민족에게 채소 시험 재배를 하고 몽골에 적합한 농업 기술개발과 파종 적기를 규명하고 채소 요리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 사역으로 하여 일하였다.

몽골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한국 채소류(무우, 배추, 수박, 참외, 상추, 썩갓, 호박, 가지, 오이 등) 재배에 성공하고 마스크를 통하여 보도가 되자 일부 몽골인들은 관심을 나타내었지만 대학이나 농업 연구소에서는 농업 비전공자라 하여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몽골 측 동업자는 32년 동안 몽골 군에 근무하다가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인데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매사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할 때는 비가림 하우스 안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나의 재배 방법, 다른 한 쪽은 러시아식 방법으로 재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따라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또한, 국제선교단체의 선발대로 이 곳에 올 때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후원금이 끊어지고 마침내 국제선교단체에서 탈퇴하여 자비량(自備糧) 사역의 길을 걷어가게 되었다.

농업 사역을 정리하고 몽골을 떠나기 위해서 그 동안 채소의 몽골지역 적응시험 자료를 가지고 몽골 국립농대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한국 채소 분야는 아무도 나를 지도할 교수가 없었다. 명목상 지도 교수들은 한국에 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였으며 결국 독학이나 다름 바 없이 공부하여 시험을 치르고 “한국 채소 몽골 지역 적응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몽골 국립농대에서 최초로 채소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 차세대 농민들을 위해 “한국 채소 재배 기술” 책을 집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대 교수가 채소재배학을 강의할 교수가 필요하니 객원교수로 근무하지 않

졌느냐고 제안해왔다. 책을 쓰고 떠나고자 결심하였던 것이 오히려 몽골에 발이 묶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몽골 농업선교프로젝트 제2기

제1기의 기간이 사역의 기초를 확립하는 단계였다면 제 2기는 농업에 대한 사역이 인정받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몽골 식량농업부와 국립농대 공동 프로젝트로 원예교육센터를 세워 채소, 과수, 화훼를 교육하였으며 농대생 및 녹색혁명 국책사업 일환으로 21개도 영농 전문인 현장 중심의 교육(농업, 컴퓨터, 한국어 및 기독교교육)을 하였다. 몽골 국립 농업대학교 농과대학과 협정체결로 한국원예시험장을 시설하였으며 농대 3학년생들에게 현장교수로 옥수수, 콩, 고구마, 무, 배추 등 20여종의 한국 채소류와 시설 원예를 강의하면서 몽골에서 최초로 35종의 외래 채소들을 지역에 적응시켰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간을 몽골국립농대와 공동 프로젝트를 교회의 후원 없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투자하여 원예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농대에서 지정해 준 해발 1,350m의 강풍이 심하게 몰아치는 잔디밭을 개간하였다. 한국에서 가져온 농자재로 비닐 하우스 4동을 짓고 3,000평에 채소, 과수 시험포장을 시설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무우,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몽골의 여름인 8월 중순, 함께 서명한 농대학장이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하여 시험 포장의 모든 작물들이 잎이 마르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몽골 국립 농업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봤지만 전혀 관심을 주지 않기에 총장과 한 판의 내기를 제안하였다. 1997. 8. 30 일 이었다. “앞으로 일 주일 후에 몽골 식량 농업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농업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대사를 모시고 한국 채소 재배 가능성을 설명하고 요리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농대 총장은 정색을 하며 “몽골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각종 국

제 행사로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 나는 “30일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 날 저녁에 첫 서리가 내려서 노지에 재배한 호박, 고구마 등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만약 서리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몽골 국립농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한 비닐 하우스에 농자재 등 모두를 두고 몽골을 떠나겠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식량농업부, 교육부, 국회의원, 한국대사관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30일 1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오전 11시에 가까스로 200명의 식사를 준비하였다. 식량농업부 장관이 원예교육센터 시험포장을 둘러보며 그 동안의 연구 실적과 생산된 농산물 그리고 몽골인들을 위한 “한국채소 재배기술” 책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몽골 정부에서 식생활 개선, 고용 창출을 위해 녹색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그 동안 모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 이 현



몽골 전경련과 녹색농업기술센터(GATC)가 김치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요리실습을 하고 있는 두분은 전경련 직원이다)

장을 보고 몽골에서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혹시 몽골 정부가 녹색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도와 줄 수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 날의 행사가 그 날 저녁 몽골 국영 방송에 톱 뉴스로 보도되었고 첫서리가 내렸다. 이 일을 본 농대 총장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었고 그 후 내각이 교체될 때 그가 식량농업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사역을 하는 중 몽골정부의 인정을 받아 농공부장관으로부터 농업발전 최우수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몽골 녹색혁명 국책사업이란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소득을 증대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국가적 수행 사업이다. 일차적으로 채소재배 및 식생활 개선을 97년부터 99년까지 하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각종 농자재 전시, 김치 세미나, 한국 농업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98년 1월부터는 농대생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으며 바얀 축트 시범 농



GATC 시험포장에서 대학원학생들과

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채소 재배와 요리 기술을 전수하였다.

1998년에 효과적인 농업지도자와 기독교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Green Agro-Technology Center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몽골 정부로부터 몽골 녹색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생활 교육을 위해 면적 27만평의 땅을 몽골 정부로부터 장기 임대 받았다.

몽골 대통령이 세 차례 원예시험장을 방문하여 몽골국민들에게 균형 있는 식생활 개선과 채소 재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켜주었다. 또한 채소, 작물 포장에서 한국요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녹색혁명의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몽골 대통령이 참석하여 2시간 이상 대화하면서 공로를 치하하고 울란바타르시 근교에 녹색농업기술센터 설립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동안 한편으로는 러시아 이루쿠츠크 농업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만을 남겨 놓고 있다.

몽골 농업선교프로젝트 제3기

이 단계는 1999년-2004년까지의 기간이다. 99년 5월 15일부터 황량한 벌판인 흥호르 지역 27만평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높이 2m의 나무 판자로 울타리를 치고 전력을 끌어들이고 지하 80m 깊이의 관정을 파고 8동의 비닐 하우스 시설과 시험포장을 만들면서 녹색농업기술센터(Green Agro-Technology Center)가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공사는 전력과 관정 공사를 제외하고는 실습 나온 국립농대생들이 하였다. 이 때부터 몽골 국립농대생, 대학원생,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현장 사역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녹색농업기술센터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6개월 과정으로 채소재배, 식품 가공, 비닐 하우스 시공, 트랙터, 조립, 한국어 등을 가르치며 학생 전원이 센터 내에 있는 겔(몽골 전통 천막집)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다. 이 곳을 수료한 학생은 한국의 대학과 협정하여 지난 2년 한국에 농업연수를 보냈다. 농대 교수, 자연 환경부 공무원들도 연수를



GATC의 몽골 전통집인 겔 기숙사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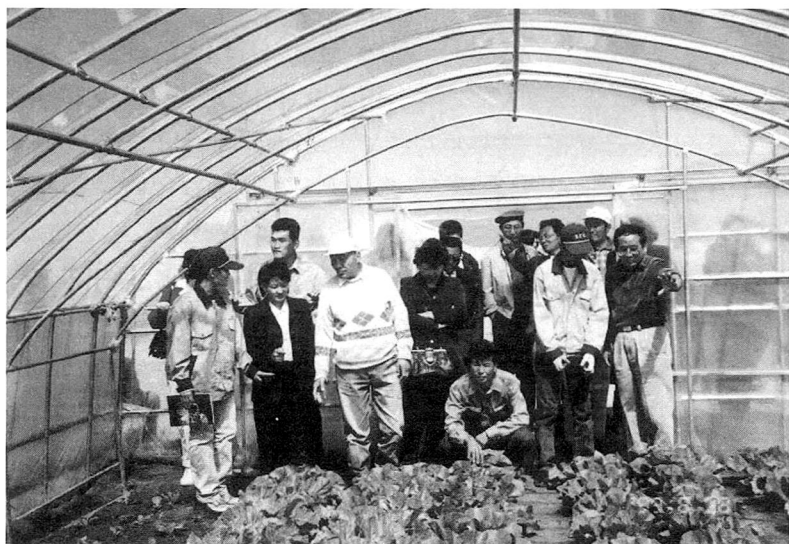
보내면서 한국과 몽골의 농업관계 공동교류 및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제3기 사역 중, 함께 동역하며 후원해 왔던 교회와 단체가 센터 건립시의 많은 노동 그리고 가시적인 영적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초기에 탈퇴함으로써 갑자기 27만평의 센터를 후원 없이 운영해야만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이끄심을 체험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며 몽골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1999년 9월에는 몽골 국립농대 40주년 기념 채소재배학 종신교수를 수여 받아 몽골 국립농대에서 국제 교류와 연구 프로젝트 담당을 맡고 있다. 올해 2001년에는 몽골식량농업부 유목 정착을 위한 친환경 농업 시범농장으로 현 녹색농업기술센터의 농장이 지정이 되어 200명의 주민들이 몽골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녹색농업기술센터(GATC) 중심의 농업개발을 통해 몽골과 실크로드 지역의 지역사회개발을 꾀하며, 교회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유목민 정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독교 협동농장을 설립하면서 21세기 식량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케할 계획이다. 또한, 식생활 개선 및 채소 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업으로 유목민을 정착시켜 안정된 생활을 유도하며, 21세기를 대비한 인류식량 지원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몽골의 광활한 토지를 개발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한 산업 개발(비닐 하우스 재배, 신 형태 목축, 현지자원을 활용한 식품 가공 등)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영농전문가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몽골인들을 양육하여 몽골전역에 복음이 울려 퍼지도록 할 생각이다.

실제 몽골국립농대와 GATC가 협정체결하여 대학생, 대학 교류를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연수시켜 왔는데 지난해 정부가 교체되고 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바뀌어서 새롭게 협정체결을



GATC 를 방문한 몽골 식량농업부장관(오른쪽 첫번째), 교육부차관(오른쪽 다섯번째), 몽골 국회의원(왼쪽 네번째) 과 GATC 학생들

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 동안 시설 채소재배, 시범 포장, 농자재 전시회 및 김치 세미나 등으로 녹색혁명 국책사업을 일으켜 왔다. 몽골국립농대는 울란바타르에 본교(학생 5,000명)가 있고 지방에 분교 두 개, 연구소 등 학생(몽골의 전지역에서 올라온) 교직원 모두 10,000여명이며 모두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므로 학원 선교의 좋은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농대의 전(前)부총장과 일부 교수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다. 전 부총장 친구 교수 2명은 교수직을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기독교실업인과 전문인 사역

영적 재 생산자를 길러 내는 팀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활성화시켜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몽골 실업인과 전문인(교수, 변호사, 고위 공무원, 군인)사회를 파고들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실업인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몽골 한국 친선 농촌개발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현 몽골 식량농업부 장관. 부회장 전 농대 부총장(예수 믿는 형제) 국회 자연 환경 농촌발전위원장(전 총리)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인은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기획이사를 맡게 되었다. 이 단체를 통해 한국의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문화, 학술을 교류하며 한국과 몽골 공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몽골 회사 사장, 고위 공무원, 여성 단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역의 전망

몽골정부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국책 사업 중에서 녹색혁명 국책사업이 가장 우수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래서 BBC, CNN, KBS 한민족 리포트(2000. 3. 13) 등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 몽



울란바타르시와 남양주시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GATC와 공동으로 김치세미나 및 농자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맨 오른쪽이 몽골식량 농업부장관이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울란바타르 부시장, 왼쪽 첫번째가 필자이며, 왼쪽 네번째가 몽골주재 한국대사, 다섯번째가 남양주시장이다.)

골 정부가 국책 사업에 외국인을 장관 고문으로 선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몽골 정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책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몽골 전역 21개 아이막에 농업 기술과 함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농업을 통하여 선교하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과 교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해 오고 있다. 동서양의 선교사가 현재 몽골에 약 200여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 사역자는 서양선교사 5명과 한국 선교사 1명뿐이다.

오랫동안 폐쇄되어 왔던 실크로드 지역, 이 실크로드 지역이 이제 다시 열리려고 하고 있다. 유목 지역인 이 지역은 구 소련연합이 무너진 후 독립국가로의 발돋움 시작하면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의 개발과 발전을 필요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이제 농업을 통한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삶의 기본을 이루는 농업을 통하여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나라나 특히 몽골과 실크로드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한국농촌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농업선교사를 몽골 땅에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하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국내연락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2-276
몽골연락처 : C.P.O. BOX 859 Ulaanbaatar 13 Mongolia
(전화) 976-11-45-7486
E-mail : gatc-co@hanmail.net